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토성월 · 부활 제4주일(성소주일)
제34권 24호(가해) 2014·5·11

[묵상]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다양한 길이 있다.

- 그저 자기 편한대로, 제 멋에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 남이 하는대로 앵무새처럼 모방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 굳은 의지와 신념에 따라 정한 목표를 향해 성실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 인간은 보람을 갖게 된다.
행복을 느끼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우리는 매일 매일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고 항상,

'내가 과연 하느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한다.

하느님은 특별한 사람만을 부르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계로 초대하시고,
당신의 도구로 삼고자 하신다.

하느님의 부르심에서 제외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가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하느님은 매 순간마다 당신의 자비로운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하신다.

우리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의 길로 가야한다.

하느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척 하거나,

일부러 탄전을 띄워서도 안 된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김성철 베드로 & 김계아 마리아, 김석돈 요셉 & 광명희마리아
특전미사	(생)김지수 보나 & 김지예 크리스티나, 정지나 테레사 & 이화용 마이클, 성호재 시몬 & 윤아 & 아라,
주 일	(연)이경용 야고보,이운조 클라라,이명자 로사, 엄익찬 안토니오, 이숙자 루피나 & 이용완 & 김정숙 & 홍숙녀 마리아 & 이두제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전시웅 요한, 최근석 마리아, 전임주 안나, 강중익 & 양영순, 이덕철 루카, 송봉규 요셉 & 송공량 카타리나, 김인주 미카엘 & 이달자 마리아, 이필연 마르첼로, 장현숙 발바라, 정소남 & 함분이, 최천옥 딸가리다,
낮 미사	(생)김기준 안젤라, 신중철 아브라함 가정, 최승원 아나스타시아, 석순영 아네스, 최조원 가브리엘라, 조숙자 레지나, 박진선 오틀리아, 김옥찬 수산나 & 박명자 크리스티나 & 엄정자 분다 & 이귀분 안나, 노세미 마리아 & 박진숙 로사 & 권영옥 루시아, 문태희 안젤라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2,14-36-41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주 님 은 나 의 목 자, 아 쉬 울 것 없 으 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으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여, 내 영혼에 생기 돋두어 주시네.○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슬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독서 베드로 1서(1Peter) 2,20-25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 음 요한(John) 10,1-10

영성체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목마른 사슴	243	243
봉헌	257	269	230
성체	382	282	282
파견	327	어머님 은혜	어머님 은혜

올바른 성모신심

제5장 올바른 성모 공경

부록 2

성모 찬미가 '아카티스토스'

<1335-1348>

(이 찬미가는 원문에 충실히 번역하였기에 기도문으로 사용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 어머니 마리아께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기쁨이 넘쳐흐릅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저주는 거두어집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담으로 말미암은 타락에서 회복됩니다.
기뻐하십시오. 하와의 눈물을 되갚으신 분.
기뻐하십시오. 인간의 생각으로 닿을 수 없는 높음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천사들의 눈길로도 꿰뚫을 수 없는 깊음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모든 것을 보살피시는 임금님의 옥좌시여.
기뻐하십시오. 모든 것을 가져다주시는 분.
기뻐하십시오. 태양에 앞서 밝히시는 별이시여.
기뻐하십시오. 하느님을 인간이 되게 하신 자궁이시여.
기뻐하십시오. 당신으로 말미암아 창조는 새로워집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께서 피조물 인간이 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당신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께서 흠숭을 받으십니다.
기뻐하십시오. 오 동정녀시여, 신부시여!”
-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신 거룩하신 동정녀 가브리엘 천사에게 신뢰하며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기이한 말씀 알아듣기 어렵지만 내 영혼에 울립니다. 당신은 씨앗을 품지 않고서도 이루어지는 생명의 잉태를 선언하십니다.”
환호합니다. 알렐루야!
- 알지 못하는 신비 깊이깊이 묵상한 동정녀 당신께 인사를 건넨 천사에게 묻습니다.
“품지 않은 자궁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대천사, 큰 경외심으로 대답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하느님의 계획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으신 분.
기뻐하십시오. 그 신비를 침묵으로 믿으신 분.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기적들의 전주곡이시여.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모든 가르침이시여.
기뻐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내려오시는 천상 계단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지상에서 천상으로 인도하는 다리시여.
기뻐하십시오. 천사들로부터 찬양받을 표징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악마들에게는 아픈 상처이시여. <◆계속>

깊은 데로 가라

제가 신부가 된 과정을 돌아보면 참으로 오묘합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께서 우연히 어떤 군인 신학생을 알게 되었고, 그 신학생 덕에 우리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고 성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신학생에게 반하고, 성당에 계시던 수녀님들의 사랑을 받아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신학생 시절, 가족들의 반대와 교회에 대한 실망 등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저는 결국 신부가 되었고 벌써 25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반대하셨던 부모님도 저를 대견해 하였고, 젊은 혈기에 실망스럽게 보였던 교회도 지금은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신부로서 살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지만, 인생에 대해 별다른 계획도 없던 제가 어찌 다 신부가 되어 예수님의 일을 돕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대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사랑'을 직업으로 갖고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신부는 사랑이 직업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는 젊은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회의 젊은이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 속에 젊은이들도 물질문화에 탐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강한 가치를 교회에 와서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가 없는 교회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한 가치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으로 치닫는 생존경쟁의 사회 속에 던져진 젊은이들에게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진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까지도 받아 안으신 예수님의 용기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각적이고 현세적인 것에 매몰된

현대 젊은이들에게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권위에 승복하는 겸손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선 젊은이들이 성당에 와야 합니다. 그들을 성당에 오게 하려면 그들에게 하느님과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성당에 가자고 해야 합니다.

단순한 일 같지만 중요합니다. 자꾸 얘기하고 권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사랑 충만하고 평화로운 삶의 모범까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그리하여 젊은이들이 성당으로 모여 올 때 예수님은 그 안에서 당신의 협조자들도 뽑으실 것입니다. 성소에 응답하는 것은 본인들의 몫이겠지만 성소의 기회는 주변에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가에 머물며 자기 몸을 사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참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깊은 데로 들어가기로 권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젊은이들이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깊은 곳에 큰 고기가 있고, 깊은 곳에 더 큰 평화와 더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고찬근 신부 / 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 주임

괜찮아, 다 잘 될거야

다 잘 될 거란 격려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게 됩니다. 괜찮다는 위로는 대체로 괜찮지 않을 때 하게 됩니다. 격려와 위로만으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격려와 위로를 건네곤 합니다. 그건 나 또한 그 말에 의지해 그러한 순간을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김아영 아가다	남성철 베네딕도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1반 안나회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성소주일

해마다 부활 제4주일은 '성소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늘 '성소주일'을 지내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성직과 수도 생활을 지망하는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늘 새로이 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풍성한 성소의 은총을 허락하기를 한마음으로 청해야 하겠습니다. - 매일미사 중에서 -

Happy Mother's Day!

어머니날을 맞아 모든 어머니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 예비자 교리반 시작했습니다.

- 교리시간 : 12월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분~9시10분, 2층 교리실
- 세례식 : 12월21일(주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제11회 백삼위 한파당 가족 체육대회

- 5월18일 주일미사 시간 변경 : 아침미사(오전 7시30분)와 낮미사(오전 10시) * 학생미사는 오전 10시 미사와 통합
- 체육대회일시 : 5월18일(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 장소 : 축구장 잔디밭
- 대상 : 구역별 전 신자
- 청팀 : 토런스 동, 서, 남 구역
- 백팀 : 토런스 북, 하버/카슨, PV 구역
- 경품 : 한남마켓, 베스트바이 선물권
- 경품추첨대상 : 추천진행중 참석자로제한, 추첨권 당일배포
- 참가상 : 끝까지 남아있는 가족당 쌀 1포씩
- 문의 : 박개순 도미니코 문화체육분과장 ☎(310)971-7043

◆ 요셉회 5월모임 오늘주일로 변경

- 일시 : 11일(주일) 낮미사후 강당(체육대회 관계로...)

◆ 2014-2015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신청 안내

- 수혜대상 : 12학년~대학재학생(1~3학년)
- 자격 : 본당 등록신자 및 등록신자의 자녀로 교회활동및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기간 : 현재 신청서 배부중~5월31일까지 마감
(사무실에 비치)
- 장학금 지급 : 8월10일 예정, 한 학생당 \$2,000

◆ 고등부 견진성사

- 일시 : 5월24일(토) 오전 10시 성마가렛 매리 본당
- 주례사제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우리본당에서 4명의 학생과 교사2명이 예정자)
- 리허설 5월16일(금) 오후 7시 30분
- 참회예절 : 5월23일(금) 오후 7시
- 문의 : 빈센트 신 견진교리교사 ☎(310)744-5878

◆ 124위 한국순교자 시복식 참가단 모집

- 프란치스코 교황성하께서 오는 8월16일 서울에서 124위 한국 순교자 시복식을 거행하심에 맞추어 북미주 사제협의회에서 '교황님과 함께하는 한국성지순례(Pilgrimage with Pop Francis in Korea)'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가단을 모집합니다. 한국어권(5박6일), 영어권(9박6일) 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출발(8월11일)은 같은날 하고 돌아오는 날은 자유롭게 결정
- 미주지역 참가단을 위한 지정석 할당은 선착순
- 시복식(8월16일 서울 광화문 광장)후 한국성지 순례
-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에 비치된 참가신청 안내서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11일(주일) : 어머니날, 친교자리 없습니다.
* 주일학교(아버지들께서 봉사, 피자)
- 5월18일(주일) : 성당체육대회날, 친교자리는 각 구역별
별로 준비해온 음식으로 점심을 나눕니다.
* 주일학교 : 수업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김기정 김상규 김선제 김성현 김양금 김영경 김우용 김정웅 김정희 김종렬 김종선 박광자 박씨니 박인식 방정복 배기엽 석순영 오수인 오일순 오희중 우영희 원건희 유선식 유철희 이경수 이귀분 이근모 이남현 이복임 이상석 이은록 이종선 장영우 전동훈 전정일 전정자 정지숙 주대중 주용순 주이자 최기남 최기호 최이원 최태훈 한혁수 홍광선 홍선자 이크리스 영희가보라
합계 : \$5,050	
주일미사 헌금 : \$2,723	2차헌금 : \$731

성전헌금	강숙경 김기정 김선제 김양금 김우용 김정희 박광자 박씨니 박인식 방정복 석순영 오수인 오희중 원건희 유선식 유철희 이경수 이귀분 이근모 이남현 이복임 이상석 이은록 장영우 전동훈 정지숙 주대중 주용순 최기남 최기호 최이원 최태훈 한혁수 홍광선 이크리스 영희가보라
합계 : \$2,585	
감사헌금 : \$50(박이레네)	

◆ 첫영성체 교리반 / 부모님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11일) 오전 10시 30분~오전 11시30분
- 장소 : 성당 2층 주일학교 교사실
- 대상 : 2학년 학생, 첫영성체 교리학생과 부모님들
- 첫영성체 예식 : 6월1일(주일) 낮 11시 미사중

◆ 2014-2015학년도 주일학교 등록 접수

- 대상 : 유치원~12학년
- 1차접수 : 6월15일(주일) 방학전까지 마감
- 등록비 :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 2차접수 : 9월7일부터 등록비 인상(\$160, \$140, \$120)
- 자모회비 : \$50(가정당)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정 : 6월27일(금)~29일(주일)
- 장소 : Oak Glen 크리스천 컨퍼런스센터(www.oakglen.org)
- 대상 : 3~12학년(선착순 50명) *참가비 : \$50(no refund)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 교사 ☎(310)613-9116

◆ 미주 한국학교 연합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

- 대상 : 한국학교 재학생(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 주제 : '우리가족' (3분이내에 자유롭게 말하기)
- 참가신청 : 5월19일까지 ksaaca@hotmail.com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행사 안내

- 제27차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5월29일~6월1일
- 장소 : 드폴 피정센터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의 한국지구장)
- 접수마감 : 5월18일(참가비 \$150)
- 성령강림 대축일 전야제 : 6월7일(토) 오후 6시30분
- 장소 : 성 바오로 한인천주교회(1920 S. Bronson Av. LA)
- 강사 : 강요셉 신부(구속주회 한국지구장)
이상훈 신부(LA대교구, 남가주성령쇄신 봉사회 지도신부)
- 문의 : 각본당 성령기도회 회장(백삼위-강혜원 아녜스)

◆ 2014 FIAT장학금 및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안내

- 신청자격 : 북미주거주 한인가톨릭학생(12학년, 대학생, 대학원생), 신앙공동체의 열심한 봉사자
- 본당신부 및 고등부 사목자의 추천서, GPA 3.0 이상
- 신청마감 : 5월31일(http://www.fiat.org)
- 문의 : fiat@fiat.org ☎(714)772-3995 ex 106

◆ 남가주 한인M.E. 제13회 골프잔치

- 일시 : 5월31일(토) 낮12시 티오프, 샷건 플레이
- 장소 : Oak Quarry 컨트리클럽
- 참가비 : \$100 * 신청 : 각본당 ME 대표부부

소공동체 5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회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5/18(주일) 체육대회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찬구 요한 701-6343 5/18(주일) 체육대회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5/16(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3258 5/18(주일) 체육대회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5/18(주일) 체육대회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5/18(주일) 체육대회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5/18(주일) 체육대회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5/18(주일) 체육대회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04 5/18(주일) 체육대회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정병옥 올리아 404-1607 5/18(주일) 체육대회
	2	1반과 같음	체육대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조소영 수산나 804-7645 5/18(주일) 체육대회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5/18(주일) 체육대회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5/18(주일) 체육대회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5/18(주일) 체육대회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정종미 클라라 818-1799 5/18(주일) 체육대회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이귀란 아녜스 617-3568 5/13(화) 오전 10시 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다음주 단체모임

본당 체육대회

하느님의 침묵

아름다운 계절에는 좋은 일만 생길 듯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힘든 삶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생명을 포기한 이들의 이야기가 이젠 낯설지 않은 슬픈 세상입니다. 절망한 이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인간의 무력감에 갇힐 때, 하느님께 화살을 돌립니다.

“주님, 당신은 왜 인간의 고통 앞에 침묵하고 계시나요?” 그분의 응답이 절실한 상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느님의 무관심은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느님을 깨으려고 무능한 신의 형상으로 떠올리며 원망하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강렬한 깨달음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 마지막 부분에서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희미했던 하느님 얼굴을 환히 밝혀 주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피로워하고 있었는데...” 자비로운 하느님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깊은 연민을 차가운 침묵으로 알아들은 저의 무지함이 부끄럽습니다.

고통을 마주하신 예수님. 하느님의 구원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일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가시밭의 험난함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절정에 이릅니다. 가까운 제자들조차 스승의 처절한 죽음에 절망하여 모두 도망쳐버린 지극한 고통의 순간입니다. 더욱 마음을 찢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비아냥입니다. “다론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마르 15,31-32) 철저히 홀로인 이 시간, 아버지 하느님마저 침묵하십니다. 하느님의 침묵앞에 예수님은 절규하십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마르 15,34)

그런데 예수님의 이 외침은 사실 절망이 아니라, 극단적인 고통의 상황에서 아버지께 온 존재로 도움을 청하시는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부당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십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 끝까지 아버지의 선하심에 희망을 두신 예수님의 믿음이야말로 쉽게 절망하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느님의 응답. 하느님은 세상의 고통 앞에서 무관심하게 침묵하는 분이 아님을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내침을 받고 하느님조차 그분을 잊으신 듯 보이는 비참한 순간에도, 아버지는 그 고통의 길을 함께 걸으시며 아드님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

명으로 되살리셨습니다. 이처럼 자비하신 하느님은 인간이 불신앙으로 절망하지 않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낙담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시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위로해 주십니다. 삶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 함께 아파하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면, 살고픈 의지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 땅 위에서 드리는 기도

선하신 하느님, 당신은 인간이 견디지 못하는 시련은 겪게 하지 않으시고, 이를 벗어날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신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여 하느님의 희망을 꺾는 일이 없게 하소서.

◆민남현 수녀 / 성바오로팔수도회

어떻게 하느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응답해 주시는 것을 모르고 지나친 건 아닐까요? 답답합니다.

✉ 질문을 받고서 문득 “공기에 색깔이 없는 이유”가 생각났습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나 세상을 가득 채우는 공기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 곁에 옆에 위에 아래에 온통 충만하다는 말 외에 어떤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을지 고민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눈에는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에 귀로 들어야만 깨닫는 우리의 한계를 십분 감안하시어 성경을 기록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말씀이 곧 주님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늘 교회의 목소리와 자연과 이웃을 통해서 다양하게 당신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분의 손길에 예민하도록 마음을 깨우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세상 소음보다 낮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감각을 주님께로 조율해야 합니다.

주님을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는 그분만을 향하는 훈련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믿음이야말로 주님을 느끼는 가장 탁월한 수단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는 하늘에서 온 빛에 눈을 응시함으로써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는 광야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분을 찾았습니다. 삶의 끝에 와 있는 지금은 눈을 감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분을 내 안에서 발견합니다.”라는 까를로 카레토 수사님의 고백에 확, 느낌이 오기를 원해봅니다.

◆장재봉 신부 / 부산교구 활천성당 주임